

안팎갈등 · 사퇴압박 · 7월인사

# 위기의 윤석열

한명숙 재판위증 진정 · 검언유착 의혹 처리 잇단 잡음

범여권 사퇴론속 靑회의 참석 주목...7월 인사도 뇌관



윤석열호 (號) 검찰이 주요 사건 처리를 두고는 법무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갈등을 보이고, 밖에서는 범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강해지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각과도'를 맞닥뜨린 형국이다.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은 조사 주체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이 진정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설 대표의 동료수감자 최모씨(수감 중)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검찰부 소관이 아니라며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실에 배당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수감자 한모씨(수감 중)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하자 '중요 참고인(한씨) 조사를 대검 검찰부가 하라'고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윤 총장이 전날(21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검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는 차원의 지시를 내리며 이에 대한 갈등은 일단 봉합국면으로 진입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검찰사안이 아니라고 본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채널A 이모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 A검사장은 이 기자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8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던 당시에도 대검과 수사팀 간 잡음이 있었다.

윤 총장은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균형있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제보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인 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4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과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재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엔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검은 지난 19일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언론에 보도되기 전 이 소집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자문단이 이 기자와 A검사장 간 유착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도 윤 총장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이 이 잘했다고 쳐도 자기가 관련됐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 일엔 공정성을 의심받는 형국"이라며 "그런 측면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윤 총장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2월 검찰 인사는 "문책성 인사"였다고 내달 인사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내 '특수형'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지난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된다면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공산이 크다.

##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국회의원이 범법자 비호?" 주장 파문

김화경 대표 목사, 순천 H아파트 김 대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 수사 촉구

"K국회의원이 김 대표 돕는다" 제보...의원실 "사실무근...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

한국공익실천협의회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전남 순천시 조례동 H아파트 주민대표를 특정 국회의원이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대표 목사는 지난 19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법 배리 차단과 공공의 이익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김모씨(H아파트 주민대표)를 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 목사는 "김 대표는 순천 S교회에서 1급 정신장애인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해당 교회에서 설교 목적으로 강대상에서 목사를 폭행,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도 용서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꺼녕 죄가 없다고 뉘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거주지인 H아파트 비상(반대)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원 제기 등으로 받아낸 보상비로 해당 아파트 내 LED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카가 운영하는 전동 대리점을 통해 시중가의 5배 이상으로 공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에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사건은 업무방해(협)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단순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검찰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회 내에서 1급 정신장애인이 폭행을 당한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고소 취하를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장애인 어머니 A(85)씨는 문맹인으로서 경찰이 이름을 쓰라는 말에 이름 석자를 쓴 것이

고소 취하서였다고 억울해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김 대표를 비호해 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일던 터에 최근 김 대표의 최측근으로부터 새로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순천고를 졸업한 부장 검사 출신 21대 국회의원 K의원이 자신의 부모가 현재 순천시 조례동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연으로 김 대표의 사건을 은폐·축소 시키고 가볍게 처벌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K의원은 김 대표를 비호하거나 도와준 사실이 없다"며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고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대표 목사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의원과 직접 전화 연결을 거절한 보좌진에게 기자는 K의원이 김 대표를 알고 지내는지 여부와 김 대표가 아파트 LED등 교체 당시 부풀리기 자재구매내역에 대한 인지 여부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22일 오전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친구와 조금 떨어져 앉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2월 20일 휴원에 들어갔던 대구지역 어린이집이 122일 만에 전면 개원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남산동 백합어린이집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옆 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며 1인용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책을 읽고 있다.

## 낮 최고기온 35도 정은경 "실외작업 2m 거리두기시 마스크 벗어라"

방역당국은 실외에서 작업할 때 2m 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이는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무리하게 야외에서 작업을 하면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

장은 이날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외에서 작업을 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

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밀집도가 낮은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도 마스크를 꼭 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또 국민들이 야외에서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 벗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 한달 먼저온 '35도 폭염' 코로나 이중고 대책 비상

서울 기온이 올 들어 최고인 35℃까지 치솟으며 일찌감치 폭염이 찾아오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폭염 대책 추진에 나섰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5℃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과 비교해도 올해 폭염은 유달리 일찍 찾아왔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 이상을 기록한 날씨는 2017년 7월25일, 2018년 7월21일, 2019년 7월5일이었다.

이에 시와 25개 자치구는 일찌감치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하며 대비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취약계층을 더 꼼꼼히 챙기는 한편, 시민들이 한 곳에 많이 모이지 않도록 각 시설을 운영한다.

각 자치구는 공통적으로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승터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당 수용인원 50% 이하로 유지 △이용자간 거리 2m 이상 확보 △코로나19 예방관리 물품 상시 비치 △2시간마다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한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